

LEAGUE TABLE

인베스트조선 2024.4Q Korea Capital Market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탄핵 터널 들어가는 2025 자본시장... "불확실성은 위기이자 기회"

내년은 본격적인 탄핵정국이 시작된다. 시장의 불안감은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상황은 어려워졌지만 이런 중에도 기회를 찾는 움직임은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및 사업조정 수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규모 자금을 쌓아둔 사모펀드(PEF)들은 좋은 자산을 염가에 사들이기 위해 경쟁할 전망이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시장은 대혼선을 빚었다. 계엄이 수 시간 만에 해제되며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시장은 알지 못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악화됐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결의하며 시장은 다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투자시장이 되서 리를 맞았다. 당장 진행 중인 거래가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 진행될 거래들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내년 시장 분위기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 전망이 적지 않다. 탄핵 충격파가 작다기보다는 그만큼 올해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IPO 등 지분투자(Equity) 영역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지 않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늦추지 않고 있다.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높은 대형 거래일수록 실행 시기를 잡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 외국계 IB 대표는 "올해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탄핵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에 나서길 주저하기 때문에 IPO를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올해 내내 허리띠를 졸라 매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년 전망은 더 어둡다. 탄핵정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향방을 짐치기 쉽지 않다. 여력도 없거나 정국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도 큰 일을 벌이기 어렵다. M&A 시장도 위축될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계엄사태 후 탄핵정국...불확실성 장기화 전망
해외 투자자·대기업 위축에 IPO·M&A 안갯속
기업 자금조달 및 사업조정 거래는 늘어날 듯
PEF는 투자기회 기대...내년 전망 낙관하기도

다른 외국계 IB 대표는 "이런 정치 불안 상황에서는 대기업들이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M&A를 추진하기도 어렵다"며 "다음 정부가 탄생한 후에도 불확실성이 건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모두가 부정적 전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고, 탄핵정국도 두 번이나 넘었다. 위기는 결국 지나가기 때문에 금세 안정을 찾을 것이라 낙관론도 없지 않다. 시장 참여자들 역시 거래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은 큰 충격과 파고를 피했다. 계엄사태 직후 일부 금융사 임원은 동남아시아 거래처에서 안부 전화를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우려할 만한 금융 위기 사태는 없었다. 외화 거래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들은 '바이어'로서 역할은 줄겠지만 '거래 발생처'로서 존재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올해 유행했던 PRS(주기수익스왑) 등 구조화금융을 비롯 자산 매각, 채권 발행 등 움직임이 내년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사들도 이런 일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채권 발행은 연초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들은 일찌감치 자금을 조달해두려 움직이고 있다. 해외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무난하게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투자에 비해 위험 부담도 덜하다.

또 다른 IB 대표는 "탄핵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긴 했지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벌써부터 연초에 회사채를 찍으려는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PEF들은 내년 자본시장에서 활약을 예고했다. 대기업이 내놓는 자산을 받아줄 곳은 PEF밖에 없는 상황이다.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 대형사들이 조단위 자금을 쌓아두고 대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경영권인수(Buyout), 사업부분할(Carved out), 유동성 투입(크레딧)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탄핵 로드맵이 나왔고, 장기 투자 전략을 펴는 만큼 단기간의 충격은 감수할 만하다는 분위기다.

한 대형 PEF 대표는 "PEF는 장기 투자 전략을 펴고 이전에도 여러 위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단기 상황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 PEF 대표는 "내년도 올해처럼 기업은 자산을 내놓고 사모펀드는 이를 인수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래보다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PEF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국 상황에 충격을 받고 조심스러워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시아 시장의 한 축인 한국 시장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업들의 곤궁한 처지나 최근 환율 상황에 투자하기에 유리한 요소다. 과거 한국의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잡았던 곳들이 많다.

한 글로벌 PEF 대표는 "대기업들은 본업이 부진해지면서 현금을 미리 쌓아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이런 상황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상호 기자



M&A 자문 1위 삼일PwC 독주... 빅딜 빈자리 채우는 공개매수·사업조정 거래

삼일PwC, 대기업·PEF 네트워크 과시하며 2년 연속 1위 독주
정국불안 변수 속 공개매수·구조조정 거래로 시장지형 변화
순위변동 없는 회계실사 시장...김앤장 다시 격차 벌리는 중
빅딜 무산에도 금리 하락 덕 이어지는 리캡·리파이낸싱 거래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은 뒤늦게 발동이 걸리는 듯했으나 기
대한 만큼의 반응은 없었다. 규모로는 작년을 넘어섰지만 대형
거래는 여전히 성사가 쉽지 않았다. 대신 늘어난 공개매수와 대
기업들의 사업 조정 작업이 빈자리를 채웠다. 내년에도 대기업
은 팔고 사모펀드(PEF)가 받아주는 형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M&A 재무자문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삼일PwC	112,804	41	SSG닷컴 B, 제이시스메디칼 B	1
2	삼정KPMG	79,870	31	삼성SDI 관광필름 B, KJ환경 S	3
3	UBS	51,527	7	동양생명보험·ABL생명보험 S, 에코비트 S	4
4	모간스탠리	50,810	6	LG디스플레이 B, 한온시스템 S	5
5	KB증권	30,177	7	고려아연 공개매수 B, MSS홀딩스 B	16
6	골드만삭스	27,579	2	지오영 B, 모멘티브 S	15
7	JP모간	27,214	3	한온시스템 B, KJ환경 B	2
8	BDA파트너스	26,334	4	에코비트 B, 벨로시티 B	17
9	BofA	24,489	3	LG디스플레이 S, UTK S	7
10	도이체증권	24,185	3	지오영 S, 제뉴원사이언스 B	10
11	NH투자증권	23,541	3	제이시스메디칼 S, 고려아연 공개매수 B	8
12	씨티글로벌마켓증권	22,693	3	에코비트 S, 제뉴원사이언스 S	6

* 공동으로 진행한 거래는 전체 금액을 회사수로 나눠 금액 반영
* S는 매각 자문, B는 인수 자문

M&A 재무자문 시장은 삼일PwC의 독무대로 끝났다. 국내외
PEF의 회수 및 손바뀜 거래부터 대기업 사업 조정까지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은 거래를 자문했다. SK렌터카, SK넥실리스
박막 사업부 매각과 SK브로드밴드 재무적투자자(FI) 지분 인수
까지 리밸런싱에 들어간 SK그룹 거래에서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올해 최대어 SK스페셜티 M&A에선 한앤컴퍼니를 대리하고 있다.

2위는 삼정KPMG다. 올해 가장 활발히 거래가 이뤄진 폐기물과
뷰티 산업에서 다수 PEF들을 도왔다. 제네시스프라이빗에쿼티
(PE)의 1조원 규모 KJ환경 매각이 눈길을 끈다. 연말에는 ST리
더스 PE의 엠캐피탈 매각 작업을 성사시켰다.

UBS는 3위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만 태영그룹의 에코비트 매각
외에도 중국 다자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보험 패키지 딜까지
두 건의 조 단위 매각 작업을 자문했다. 효성화학 특수가스 매
각 자문은 무산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롯데카드와 모던하우스,
HPSP 등 PEF의 조단위 회수 작업을 지원할 전망이다.

중국 TLC그룹의 LG디스플레이 중국 LCD 사업 인수를 자문한
모건스탠리가 4위다. 삼성SDI의 관광필름 사업 매각에 이어 현재
는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 매각을 자문하고 있다. M&A 외에
현대차 인도법인, 네이버웹툰(웹툰엔터테인먼트) 상장에서 쏠쏠
한 실적을 냈다.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에서도 BofA, 씨티글로벌마켓증권, JP모건 등과 손을 맞추고 있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2조원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를 자문하며
5위로 치고 올라왔다. NH투자증권이 PEF의 공개매수 거래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경쟁 증권사들의 공개매수 주관 영업도 치열해
다. 올해 안재훈 IB 대표를 영입한 골드만삭스는 하반기 숨을 고
르며 6위에 올랐다.

JP모건은 EQT파트너스의 KJ환경 인수전에 참여하며 7위를 기
록했고,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에도 힘을 보탤다. 한화생명의 미국
증권사 인수를 자문한 BDA파트너스는 8위로 집계됐다. LG디플
레이의 LCD 사업 매각을 도운 BofA는 근소한 차이로 도이체증권
을 누르고 9위에 올랐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올해 최대어로 꼽
히던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매각 무산으로 아쉬움을 삼켰다.

M&A 회계실사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삼일PwC	171,029	53	LG디스플레이 B, 한온시스템 S	2
2	삼정KPMG	136,726	39	에코비트 S, 지오영 B	1
3	딜로이트안진	81,482	24	지오영 S, 한온시스템 B	4
4	EY한영	90,715	15	에코비트 B, LG디스플레이 S	3
5	숲	2,740	3	신세계건설 레저사업부문 S, LG유플러스 전기차 충전사업 부문 S/B	-

삼일PwC는 M&A 회계실사에서도 1위를 지켰다. 전체 거래 규모
나 건수에선 작년에 미치지 못했지만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
렸다. 실사 시장에서도 자문에서와 마찬가지로 SK그룹과 한앤
컴퍼니 거래에 꾸준히 참여했다. MG새마을금고의 엠캐피탈 인
수 실사를 맡았다.

2위는 삼정KPMG다. 지난 분기 실사 총액에서는 삼일PwC를 앞
섰지만 이번 분기 들어 건수와 총액 모두 격차가 벌어졌다. 4분
기 중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시작으로 LG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해외 신사업 투자 실사를 담당했다.

딜로이트안진은 3위로 집계됐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에도
한국타이어그룹의 한온시스템 인수전에 참여하며 대형 PEF의
회수 거래를 도왔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지분 재매입과
한화생명의 미국 증권사 인수전에도 참여했다.

4위 EY한영은 삼성SDI 관광필름 사업과 LG디스플레이의 중국
LCD 사업 등 대기업들의 굵직한 구조조정 거래 실사를 도왔다.
마찬가지로 신세계·LG그룹 등 대기업 거래에 꾸준히 참여하는
회계법인 숲은 연간 5위로 순위를 마감했다.

M&A 법률자문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김앤장	318,462	72	고려아연 공개매수 B, 에코비트 S	1
2	세종	141,343	44	한온시스템 B, KJ환경 S	4
3	광장	118,631	39	LG디스플레이 B, 삼성SDI 관광필름 B	2
4	울촌	118,558	35	에코비트 B, 동양생명보험·ABL생명보험 B	3
5	태평양	73,254	26	LG디스플레이 B, SSG닷컴 S	5
6	지평	13,033	9	모트를 S, 고려노벨화학 B	7
7	화우	12,968	7	벨로시티 B, 디엔솔루션즈 B	6
8	베이커맥켄지&KL파트너스	10,268	7	금호고속 광주종합버스터미널 S, 티웨이항공 S	8
9	진	7,323	7	보령바이오파마 S, 동우에너지소재 B	-
10	LAB파트너스	5,716	7	이테크시스템 B, 코팅코리아 S	9
11	KCL	4,389	3	푸드스트 B, 코리아인스트루먼트 B	12
12	대륙아주	1,765	2	아주스틸 S, 개미식품 B	11

김앤장이 법률자문 1위를 수성했다. 경쟁 로펌 추격도 주춤한 모
습이다. 지오영을 시작으로 에코비트,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자문까지, 큰 거래는 구조를 가리지 않고 빠짐없이 참여했다.

세종이 연간 2위 자리를 지켜냈다. 하반기 KJ환경 인수를 제외
하면 조 단위 거래 자문 실적은 부족했으나, PEF의 메자닌 투자
와 SK그룹 비주력 사업 매각을 여러 도왔다. 고려아연 분쟁에선
MBK파트너스를 돕고 있다.

3위는 광장이다. SK브로드밴드 지분 재매입과 SK엔무브 지분,
CJ그룹 콘텐츠웨이브 지분 인수까지 SK그룹 사업 조정 거래에
두루 참여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관여했고, SK온
의 1조원 규모 추가수익스왑프(PRS) 거래도 자문했다.

울촌은 4위로 집계됐다. PEF와 증권사의 하이브그룹 상환전환우
선주(RCPS), 전환사채(CB) 투자를 비롯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IDT바이오로지카 인수를 자문했다. 최태원 SK그룹 이혼소송 변
호인단으로도 참여했다.

태평양은 5위다. 하반기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 교체와
LG디스플레이 LCD 사업 매각 등 대기업 유동성 대응 작업을 여
러 도왔다. 에피너티의 롯데렌탈 인수 거래를 자문하고 있다.

6위는 9건의 자문 실적을 올린 지평이다. 웰투시인베스트먼트의
모트를 매각 및 키움PE의 고려노벨화학 인수 등 PEF 거래에서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화우는 7위로 내려갔다. 고려아연 분쟁 초반부터 참여한 베이커
맥켄지앤KL파트너스는 8위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진과 LAB파
트너스까지 건수는 동물이나 총액 차로 7~10위가 나뉘었다.

M&A 인수금융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44,081	16	LG CNS, DIG에어가스	2
2	KB국민은행	31,440	15	KJ환경, 유베이스	1
3	삼성증권	25,990	8	지오영, DIG에어가스	8
4	NH투자증권	25,050	20	에코비트, 골프존카운티	4
5	우리은행	24,319	20	롯데카드, 프리드라이프	7
6	한국투자증권	20,572	19	DN솔루션즈, 클래스스	6
7	하나은행	18,738	12	클래스스, 스피엑스	3
8	신한은행	14,547	12	DIG에어가스, 롯데손해보험	5
9	하나증권	11,888	13	SK피유코어, 신한금융지주	9
10	키움증권	11,329	9	에코비트, SK엔무브	10

4분기 인수금융 시장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매각 무산에도 시중
금리가 하락한 덕에 차환 수요가 꾸준히 이어졌다. KB증권은
DIG에어가스 차환, KJ환경 인수금융 등 굵직한 거래를 주선하며
연간 1위를 기록했다. 연말 LG CNS의 조 단위 차환을 단독으로
주선해 격차를 벌렸다.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리캡 등 대형
PEF의 주목도 높은 거래마다 이름을 올렸다.

작년 1위 KB국민은행은 올해 2위로 내려갔다. EQT파트너스의
KJ환경 인수금융 주선에선 과거 SK실더스 거래와 마찬가지로
KB증권과 맞손을 잡았다. 직전 분기 7위를 기록했으나 막판 뒷
심을 발휘하며 연간 2위로 집계됐다.

3위는 삼성증권이다. 경쟁사 대비 주관 건수는 절반에 불과하지
만 지오영, DIG에어가스 등 대형 거래로 조단위 실적을 쌓았다.
NH투자증권은 4위를 차지했다. 작년 이후 공개매수 시장에서 존
재감을 키우며 파생되는 자문·주선 일감을 따내는 선순환을 보
이고 있다.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인수전에서 발 빠르게 대응했던
은행권은 거래 무산 영향으로 5위 아래에 머무른 모습이다.

힘겨운 성장 이론 로펌업계, '이벤트'에 기대야 하는 2025 실적

올해 어렵다 전망 많았지만 대부분 성장세 시장 위축에 탄핵정국까지... 벌써 내년 걱정 불확실성 견힐 때까지 기존 먹거리도 위축 구조조정·PEF·분쟁 등 변수에 실적 갈릴 듯

연말로 접어들며 대형 법무법인들이 분주해졌다. 통상 연간 매출 중 10% 이상이 12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막판에 얼마나 자문 수수료를 거둬들이냐에 한 해 농사 결과가 달라진다. 올해 영업일이 열흘이 채 남지 않은 터라 각 법인 경영진들은 파트너들을 독려해 고객들에 보수를 청구하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작년 성장세가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연말까지 따져봐야겠지만 의미있는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내외 경제 환경이 더 악화하며 실적 방어가 쉽지 않을 것 이란 우려가 많았던 데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장은 올해 처음으로 매출 4000억원의 벽을 넘느냐가 관심사다. 작년(3724억원)보다 8% 이상 성장하면 4000억원을 살짝 넘 기게 되는데 광장 내부에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문 분야의 강점을 이어갔고, 형사 자문 영역에서도 성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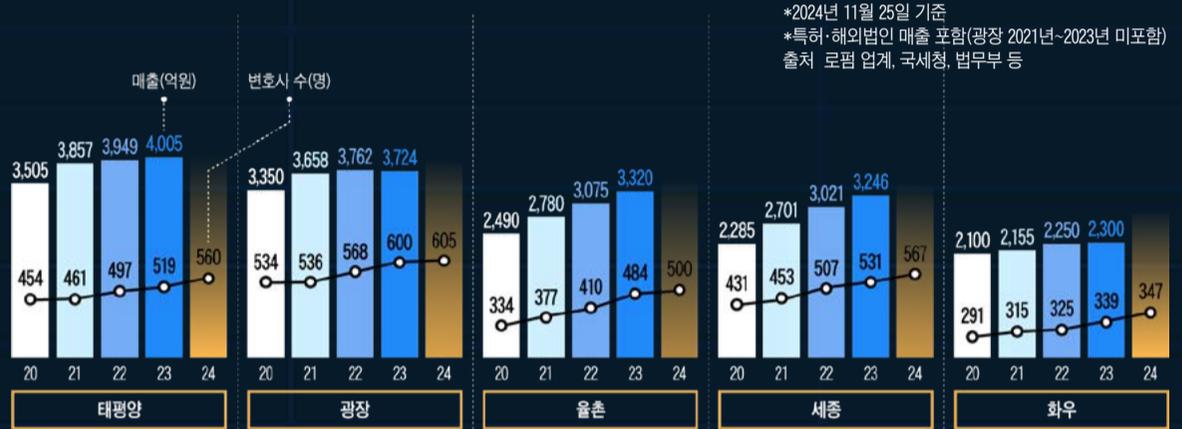
태평양은 상반기까지 다소 주춤했는데 하반기 들어 롯데렌탈 M&A,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에 관여하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올해 한 차릿수 성장률을 기록해 매출 4000억원(특허 및 해외법인 포함)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울촌도 올해 한자릿수 후반 대 성장률이 점쳐진다. LG그룹의 재산 분쟁 자문을 이어가고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상고심 대리인단에도 참여하는 등 대기업 관련 성과를 냈다. IMM컨소 시업의 예코비트 인수를 자문했다.

세종이 올해 울촌을 넘어서느냐도 관련 포인트다. 작년엔 3분기까지 근소하게 앞서다가 4분기 울촌의 뒷심에 밀린 바 있다. 10% 초반대 성장을 이룰 것이라 예상도 나오는데, 이대로면 세종이 올해 4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화우는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일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매출은 3000억원에 가까워진다. 기존에 강점이 있는 금융 제재 분야의 성과가 좋았고, 각종 분쟁과 송무 영역에서도 쓸쓸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 대형 법무법인 매출 및 변호사 수 추이



*2024년 11월 25일 기준
*특허·해외법인 매출 포함(광장 2021년-2023년 미포함)
출처 로펌 업계, 국세청, 법무부 등

대형 법무법인들은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자문 역량을 강화하며 성장세를 이끌어냈다. 올해 새 집행부 체제를 맞은 법인들도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년 살림을 꾸리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망은 더 어둡고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시장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라 기존 먹거리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울 수 있다.

자문 분야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해득실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국내에서 탄핵정국이 이어졌다. 대기업들은 불확실성이 견힐 때까지는 몸을 사릴 것으로 예상된다. 돈 되는 해외 M&A 자문이 늘어날 리 없다. 기업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자문 비용이다.

규제 분야 자문도 당분간 공회전이 이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 금융감독당국 모두 차기 정권 수립 전까지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 일정을 감안하면 반 년 가까이 제재 관련 일감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엄혹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관(官)이 기업들을 더 옥죄기는 쉽지 않다.

내년 하반기에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확실성이 견힐 뿐 우리 경제의 근원적 체력이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괄목할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나마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구조조정이다. 여러 대기업이 작년과 올해까지 유동성 확보에 애를 먹었다. 일부 기업이 선제적으로 자산들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많은 기업이 내년에도 긴축 경영을 예고한 만큼 수많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법무법인은 산업은행과 접점을 다시 늘리려 하고 있다.

구조조정 매물들을 받아줄 만한 곳은 사모펀드(PEF) 외에 보이지 않는다. 올해까지 조단위 자금을 모은 대형 PEF들은 내년 초부터 공격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한국에 쓸 자금을 많이 가진 글로벌 PEF의 행보도 관심사다. 게임과 탄핵 사태로 위축되긴 했지만 평가 매수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

기업이 주춤한 상황에서 자문 비용을 후하게 쳐줄 곳도 국내외 대형 PEF뿐이다. 대형 법무법인들은 이들과 얼마나 여러 차례 거래를 함께 하느냐에 따라 한 해 장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PEF와 연이 있는 변호사나 외국변호사 영입 경쟁전도 치열하다.

각종 분쟁이 얼마나 벌어지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모든 이목이 집중됐는데 내년에도 이런 형태의 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의 경영권을 둔 공방은 서로 배수진을 치기 때문에 비용을 아낌없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사안마다 법무법인들의 수입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한 대형 법무법인 경영진 변호사는 "내년은 내내 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일감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에는 경영권 분쟁 등 갈등 상황에 더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상호 기자

아이가 어떤 꿈을 꾸든 이뤄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우리 아이의 소중한 꿈을 키우는
교보 우리아이 교육보장보험 (무배당)

교육·독립 자금 마련과 일상생활 건강 보장
교보문고와 함께하는 에듀케어 서비스
연령별 성장발달 헬스케어 서비스



* 교보생명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의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2408-8 상품마케팅팀(2024.08.05~2025.08.04)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4-05300호(2024.08.13~2025.08.12)



연초부터 조단위 대기업 구조조정 거래 봇물… 대형 PEF 인수금융 영업 예의주시

대기업 팔고, 대형 PE가 받아주고…구조조정 M&A 분주
SK스페셜티, CJ 바이오, 롯데렌탈 등 예고된 거래만 10조
시장 어수선했어도 내년 인수금융 수요는 기대감 큰 분위기
자본비용 관리, 공개매수 분쟁 등 영업지형 변화에도 주목

시장 전반이 어수선했던 가운데 내년 초부터 조단위 인수합병(M&A) 거래가 쏟아질 예정이다.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받아 가기 위한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과의 매칭 작업이 한창인 덕이다. 연말 진행 중인 거래들만 합쳐도 10조원을 훌쩍 넘기는 만큼 인수금융 시장에서도 영업지형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인수금융 시장은 호황기였던 2021년에 버금가는 규모로 집계됐다. 눈길을 끌던 대형 거래가 빈번히 좌초하며 긴장을 늦추기 어려웠지만 시중금리가 5%대로 떨어지며 늘어난 리파이낸싱(차환)·리캡(자본재구조화) 수요가 제때 빈자리를 채웠다. 인베스트조선 집계상 10위권 이내 기관들은 은행·증권사를 가리지 않고 조단위 주선 실적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로 재차 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는가 했으나 이내 내년 협상을 낙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자산 재배치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대기업과 투자 실적을 확보해야 하는 PEF 사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풍족한 일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에코비트 거래 종결을 코앞에 두고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엔 눈앞이 캄캄했지만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며 "올 한 해 출자확약서(LOC)를 끊어주고도 무산된 거래가 많아 허탈한 적이 많았지만 내년 예정된 빅딜이 많기 때문에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미 SK(주)와 한앤컴퍼니가 SK스페셜티 매매계약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SK스페셜티는 연초부터 그룹 리밸런싱(사업 조정)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꼽혀 왔다. 동종 산업인 효성화학의 특수가스(NF3) 매각 작업이 부침을 겪었던 것

과 별개로 지난 9월 이후 기존 계약서 검토부터 구체적인 실사 작업이 꾸준히 이뤄져 온 것으로 확인된다. 지분 일부를 SK(주) 측에 남겨두는 구조인 만큼 거래금액은 4조원 이하일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번 거래에서만 2조원 가까운 신규 인수금융 수요가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전격적으로 체결했다. 롯데렌탈 지분 56.2% 예상 매각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 투자은행(IB)을 위시한 자본 업계 전반에서도 롯데그룹이 연말 인사 이후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적으로 내놓을 매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어질 거래까지 감안하면 역시 조단위 인수금융이 필요할 전망이다.

최대 6조원 규모가 거론되는 CJ제일제당의 바이오사업부(그린바이오) 매각 대금까지 감안하면 내년 초 거래 규모만 10조원 안팎에 달한다. 단순히 거래대금 50% 수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도 4조~5조원 규모 대출이 필요한 셈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정국이 불안한 때 보니 대기업들도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고, 올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대형 PE들도 갈증이 심한 상황"이라며 "사업 부진에서 비롯된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M&A 시장 전반에 물이 들어차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매물을 받아줄 대형 PE에 대한 인수금융 영업지형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시장에서선 성사를 앞둔 위 거래들에서 어떤 금융사가 주선 역할을 맡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 PE들도 더 좋은 거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접촉하지만 그간 전적에 따라 특정 기관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거래 규모가 커지면 단독으로 주선 작업을 꾸리기 힘들기 때문에 일찌감치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대기업 매물에 눈독을 들이는 대형 PE들은 내년에도 회수 실적을 확보하려 기존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전반이 보통주자본(CET1) 비율 관리에 비상이 켜진 것도 변수다. 인수금융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RWA)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나, 만기가 긴 term을 새로 담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실제 하반기 들어 인수금융 시장에서 증권사들의 존재감이 시중은행보다 높아지기도 했다.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방식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대형 PE와 대기업 사이 영업전선이 나누어지는 양상도 관측된다. 양측 분쟁에서 어느 쪽에 가담했느냐를 두고도 물밑 신경전이 적잖게 벌어졌다. 실제로 주선 기관 사이에선 지난달 있었던 MBK 파트너스의 연차총회 참석 여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어느 정도 잠재 원매자를 특정한 후 매각 작업에 나서고 있고, PE들도 저마다 돈독한 금융사 윤곽이 잡혀 있어서 당장 성사를 앞둔 거래에서는 주선 영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그러나 당장 은행권 분위기나 고려아연 분쟁과 같은 시장 내 변수를 감안하면 영업지형 변화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낙영·이지훈 기자

ECM '빅딜' 상장 연기에 거래 건수가 중요... 1위엔 한국證

거래 건수 많았던 한국투증, KB증권 앞서며 전체 주관 1위 차지
공모주 침체한 대신 상장리츠 유증 잇단 4분기
대신증권 약진 두드러져...전년도 7위서 4위로

올해 주식자본시장(ECM) 리그테이블 순위는 거래 규모보다는 얼마나 많은 거래를 주관했느냐로 갈린 모습이다. 4분기 IPO 대어(大魚)로 꼽혀왔던 케이뱅크가 상장을 철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엠앤씨솔루션 등 중대형 규모의 딜도 4분기 급격히 침체한 공모주 시장의 영향으로 공모 규모를 상당폭 축소하기도 했다.

4분기(누적) ECM 리그테이블은 한국투자증권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에는 3위를 기록했지만 4분기 한화리츠 유상증자를 단독주관하며 1위로 올라섰다. 2위를 차지한 KB증권은 12월에 KB발해인프라와 엠앤씨솔루션의 IPO 등 굵직한 거래를 주관하며 한국투자증권과의 격차를 좁히는 모습이었으나 11월, 한화리츠 유상증자를 단독 주관한 한국투자증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케이뱅크가 끝내 상장을 철회한 점이 ECM 전체 순위엔 큰 영향을 미쳤다. 약 1조원 규모로 상장을 준비했던 케이뱅크 주관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담당해서다. 이 영향으로 전년도 ECM 전체 주관 1위를 차지했던 NH투자증권은 3위로 내려갔다.

한국투자증권은 중소형 딜 위주로 거래를 성사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의 ECM 주관 건수는 총 26건으로, 2위인 KB증권(15건)과 비교하면 11건이나 더 많은 거래를 주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LG디스플레이와 시프트업 등 대규모 딜을 주관하기도 했지만, 이외에도 공모규모 500억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을 적극적으로 주관했다.

올해 가장 큰 규모의 거래는 LG디스플레이의 유상증자(1조2925억원)였다. 올해 유일하게 1조원이 넘는 딜로, LG디스플레이 자금 조달을 주관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들 모두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화오션(1조4971억원), 롯데케미칼(1조2155억원), SK이노베이션(1조1433억원) 등 대규모 유상증자 딜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대기업 계열사 유상증자 딜이 많이 줄어들어든 모습이다.

올해 ECM 시장에서 대신증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대신증권은 8404억원을 주관하며 전체 주관 4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7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단계나 올라서며 중소형 증권사 중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4291억원을 주관한 삼성증권(6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규모를 주관하며 격차를 벌렸다. 전년도 4위를 차지했던 미래에셋증권은 8221억원을 주관해 5위로 내려갔다.

4분기 공모주 시장은 침체가 이어진 반면,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증자는 잇달았다. 올해 4분기 들어 유상증자를 실시한 상장 리츠는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신한알파리츠, 롯데리츠, 한화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마스터프리미어리츠 등 총 7곳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은 한화리츠 단독주관 및 신한알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등을 주관하며 유상증자 주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내년 1분기에는 올해 상장을 연기했던 케이뱅크를 비롯해 LG CNS와 DN솔루션즈, 서울보증보험,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대어급 기업들의 상장이 예정돼 있다. 삼성증권은 DN솔루션즈와 서울보증보험,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주관에 모두 이름을 올리며 올해 비교적 부진했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빈 기자

ECM 전체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17,021	26	한화리츠	2
2	KB증권	15,105	16	LG디스플레이	3
3	NH투자증권	10,769	19	LG디스플레이	1
4	대신증권	8,404	12	LG디스플레이	7
5	미래에셋증권	8,221	12	산일전기	4
6	삼성증권	4,291	10	아이스크림미디어	5
7	신한투자증권	3,419	8	HD현대마린솔루션	6
8	JP모간	2,935	2	HD현대마린솔루션	-
9	하나증권	2,571	4	HD현대마린솔루션	8
10	키움증권	1,786	6	HD현대마린솔루션	10

IPO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6,078	15	시프트업	3
2	KB증권	5,407	8	엠앤씨솔루션	5
3	미래에셋증권	5,053	9	산일전기	1
4	NH투자증권	4,914	14	시프트업	2
5	JP모간	2,935	2	HD현대마린솔루션	-
6	신한투자증권	2,846	6	HD현대마린솔루션	-
7	삼성증권	2,838	7	아이스크림미디어	4
8	대신증권	2,264	8	케이비발해인프라	6
9	하나증권	2,175	3	HD현대마린솔루션	8
10	UBS	1,485	1	HD현대마린솔루션	-

유상증자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10,943	11	한화리츠	1
2	KB증권	7,197	7	LG디스플레이	3
3	대신증권	6,139	4	LG디스플레이	6
4	NH투자증권	5,855	5	LG디스플레이	2
5	미래에셋증권	3,169	3	대한전선	9
6	삼성증권	1,453	3	삼성제약	-
7	SK증권	1,382	6	삼성FN리츠	5
8	IM증권	862	3	다원시스	-
9	키움증권	702	2	에코앤드림	-
10	신한투자증권	573	2	신한알파리츠	4

ELB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2,500	1	엔کم	-

ECM 전체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15,889	18	LG디스플레이	3
2	한국투자증권	15,555	27	LG디스플레이	1
3	NH투자증권	11,013	20	LG디스플레이	2
4	대신증권	8,943	15	LG디스플레이	6
5	미래에셋증권	8,523	13	산일전기	5
6	삼성증권	4,871	14	아이스크림미디어	5
7	신한투자증권	3,420	10	에이피알	4
8	JP모간	3,143	2	HD현대마린솔루션	-
9	하나증권	2,326	6	HD현대마린솔루션	7
10	SK증권	2,012	11	한화리츠	8

IPO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6,346	8	HD현대마린솔루션	5
2	한국투자증권	6,154	15	시프트업	3
3	미래에셋증권	5,508	10	산일전기	1
4	NH투자증권	4,667	14	시프트업	2
5	삼성증권	3,419	10	아이스크림미디어	4
6	JP모간	3,143	2	HD현대마린솔루션	-
7	신한투자증권	2,596	8	에이피알	-
8	대신증권	2,156	9	노머스	6
9	UBS	1,707	1	HD현대마린솔루션	-
10	하나증권	1,419	4	HD현대마린솔루션	7

유상증자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9,401	12	LG디스플레이	1
2	KB증권	7,543	9	LG디스플레이	3
3	NH투자증권	6,346	6	LG디스플레이	2
4	대신증권	6,287	5	LG디스플레이	6
5	미래에셋증권	3,015	3	대한전선	9
6	SK증권	2,012	11	한화리츠	8
7	삼성증권	1,452	4	삼성FN리츠	5
8	하나증권	907	2	한화리츠	7
9	IM증권	825	4	다원시스	-
10	신한투자증권	824	2	신한알파리츠	4

ELB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2,000	1	엔کم	-

얼어붙은 M&A 시장, IPO로 눈돌린 모건스탠리… '현지 상장'서 선전

모건스탠리, 네이버웹툰 상장 주관 등 IPO 두각
해외상장 수수료만 수백억
배경으로 안정적인 조상욱 대표 체제 거론

M&A 시장 침체가 올해에도 이어졌다. 하반기 금리인하와 함께 대형딜이 나오긴 했지만 대통령 탄핵이란 대형 정치적 이벤트가 벌어지면서 내년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형 M&A 거래가 주춤한 사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다른 먹거리로 활로 찾기에 나섰다. 그 중에서 모건스탠리는 올해 IPO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네이버웹툰 미국 상장 등 국내 기업 해외 법인의 현지 상장에서도 주로 실적을 쌓은 것이다.

올해 자본시장 분위기는 침체 일로였다. 하반기 그나마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사정이 어려운 몇몇 대기업이 내놓은 딜이 전부였다. 삼성이 대형 M&A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성사된 것은 없다. 긴축 모드로 돌아선 SK그룹, 롯데그룹이 매도자로 나선 딜 정도가 전부다.

이 때문에 대형 M&A가 주요 먹거리인 글로벌 IB들은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수년째 인베스트조선 M&A 리그테이블 순위 1위를 삼일회계법인에 내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딜에 강점이 있는 회계법인들은 '박리다매' 전략을 통해서 M&A 가뭄을 버텨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글로벌 IB들이 지오영, 한온시스템 등 대형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회계법인을 뒤쫓았다.

글로벌 IB들은 대안으로 수익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중에 하나가 IPO 자문이다. 특히 해외 상장은 수수료 규모 면에서 오히려 M&A 자문 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기까지 한다. 대기업 IPO도 상장규모가 수 조원에 이르다 보니 쏠쏠한 먹거리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올해 IPO 시장에서 글로벌 IB 중에선 모건스탠리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올해 국내 법인의 국내 상장엔 관여하지 않아 인베스트조선 ECM 리그테이블엔 실적이 없지만, 국내 기업 해외 법인의 현지 상장은 거의 대부분 모건스탠리가 담당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6월에 웹툰엔터테인먼트(이하 네이버웹툰)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성공한 바 있다. 4조원 규모 상장을 축하하기 위해 네이버 경영진들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총출동했다. 상장식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상장 주관업무를 맡은 모건스탠리는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상장 과정에서 모건스탠리 최고재무책임자가 네이버웹툰 이사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해당 거래로 수수료로만 수백억원을 벌어들였을 것이다”라며 “해외 IPO는 수수료가 국내 상장 대비 수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라고 말했다.

10월에는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을 주관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시총 26조원에 공모규모만 4조원이 넘는 대형거래였다. 정의선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식에 참여할 정도로 공을 들인 거래다. 모건스탠리는 네이버웹툰 상장 이후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을 성공시키면서 해외 법인 현지 상장에 강한 IB란 인식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내년 해외 법인 현지 상장 거래 중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인 LG전자 인도법인 상장도 모건스탠리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LG전자 100% 자회사인 인도법인의 시가총액이 국내 상장된 본사를 넘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LG전자 시가총액이 14조원인데, LG전자 인도법인의 몸값은 18조원 안팎이 거론된다. LG전자는 최근 인도법인을 인도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 인도증권거래위원회 예비심사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내년엔 국내 ECM 리그테이블에서도 모건스탠리의 이름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모건스탠리는 최대 6조원 규모 LG CNS 상장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LG CNS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하며 코스피 상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LG CNS는 일단 1월9일부터 예정된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정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1월 말 공모청약을 거쳐 2월 중 상장이 완료된다. 모건스탠리는 KB증권·메릴린치와 함께 공동대표주관을 맡아 공모 물량의 20%(약 2000억원)를 책임진다.

모건스탠리가 IPO에서 강점을 보이는 배경으로 오랜기간 대기업 네트워크를 다진 조상욱 대표의 역량이 거론된다. 다른 IB 하우스들이 세대교체 등 부침이 있었던 것에 반해 모건스탠리는 2018년 이후 조 대표 단독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안정된 지배구조에서 나오는 영업력으로 대기업 거래를 잇따라 수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UBS(합병 전 크레디트스위스)의 김세원 전무가 모건스탠리에 합류하면서 힘을 보탤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무는 크래프톤 IPO를 담당하는 등 IPO 업무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UBS는 올해 4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 성공하며 IPO 리그테이블 10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김 전무는 아직 전 UBS가 이 거래를 수주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시니어 글로벌 IB 인력이 상당수 업계를 떠난 가운데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건스탠리가 IPO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 해외 법인 현지 상장 트랙레코드를 잇따라 쌓으며 향후 유사한 거래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선우 기자

땡겨요



무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아도 시킬 때마다!

최대 **20% 즉시 적립**

최대 **15% 추가 할인효과**

배달앱 땡겨요로
혜택 가득 배달 생활하세요!

모든 주문 최대 10% 포인트 적립

땡겨요 페이로 주문 결제 시 최대 10% 포인트 즉시 적립

땡겨요 플러스 고객 추가 10% 포인트 적립

땡겨요 플러스 고객이 2면 모든 주문 10% 포인트 추가 적립

신규 고객 총 1만원 할인 쿠폰

첫 주문은 물론 두 번째까지 총 1만원 할인

지역화폐 결제 시 최대 15% 할인 효과

서울 전 지역,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지역화폐 사용 가능

[2024년 6월 기준, 협약지역 지속 확대 중]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

땡겨요



NH·미래셋 주춤한 틈 타 인력늘린 중소형사, ECM서 약진

탈 많았던 미래에셋, ECM 5위로 다소 부진
절대강자 NH는 3위로 내려와...과두사태 여파
대신·키움, 인력 영입하며 전통 IB 확장

올해 ECM 시장은 기존의 3강(強) 구도가 깨지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KB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약진했고,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예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이었다.

기존의 강자 중 한국투자증권만 체면치레를 한 가운데, 투자은행(B) 부문을 확대하며 인력을 크게 늘린 대신증권이 다수의 기업공개(IPO)를 앞세워 4위에 이름을 올린 점이 눈에 띄었다. 최근 공격적으로 인력을 영입하고 있는 키움증권 역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 한해 글로벌 투자와 PF 부실화 등 탈이 많았던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ECM 성적은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증권은 전체 ECM 5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4위에 비해 한단계 내려왔다. 2년 연속 3위 밖으로 밀려나며 이젠 'NH·미래·한투'로 이뤄진 '3강 구도'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1~2년간 미래에셋 IB부문은 해외 부동산 이슈로 인한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로 인해 공격적인 영입이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우리투자증권 등으로 IB 인력의 이탈도 적지 않았다.

미래에셋그룹 차원에서 자산관리(WM)에 무게를 두는 전략적 방향성이 제시되며, IB는 찬밥 신세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잇따랐다. 미래에셋은 'IB에 인사로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며 달랬고, 실제 강성범 부사장(IB1부문 대표)이 유임했다. 주용국 부사장(IB2부문 대표)은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빅딜' 부재가 아쉬웠다는 평가다. 올해 미래에셋증권은 LG디스플레이 유상증자, HD현대마린솔루션 상장 등 랜드마크 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하반기 주관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준 상장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형 공모주로 꼽혔던 케이뱅크의 상장 연기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ECM 절대 강자였던 NH투자증권은 3위로 내려왔다. 역시 1위를 거의 놓치지 않았던 IPO 리그테이블에서도 근소한 격차지만 4위를 기록했다. '과두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증권사 IPO부서 관계자는 "타사에서 마케팅할 때 NH는 과두 때문에 (거래소 등)에 미운털이 박혀 공모가 쉽지 않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기도 했다"며 "ECM 대표가 연말 인사에서 타 본부로 발령나고, 새 헤드를 데려오며 전열을 정비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대형사들의 순서가 뒤바뀌는 사이, 대신증권이 깜짝 성과를 내는 등 중소형사들이 약진했다는 평이다. 대신증권은 8404억원을 주관하며 전체 주관 4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7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단계나 올라서며 중소형 증권사 중 가장 뚜렷한 상승세였다.

대신증권은 올해 들어 업계 주요 인력을 영입하면서 IB부문 확장에 공을 들였다. 대신증권은 커버리지 인력을 2023년 말 기준 33명에서 50명까지 증원을 추진 중이다. 자기자본 3조원을 달성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격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IB 부문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대신증권은 중소기업 IPO를 기반으로 영역을 점점 확대해나가고 있다. 올해 대신증권은 8건의 IPO를 주관했는데, 이는 이른바 '빅3' 다음으로 많은 건수다.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출신 나유석 전무가 2014년 대신증권으로 이직한 뒤 부서 수준이었던 조직 규모가 본부, 부문급으로 커졌다. 올해 들어 인력을 40명 이상으로 늘리며 웬만한 대형사 수준의 조직 규모가 됐다.

총 6건의 ECM 딜을 주관하며 10위에 오른 키움증권도 올해 초 임주성 대표 취임 이후 IB부문 조직개편을 확대하며 전통IB 확장에 공을 들였다. 2023년말 기준 50여명이었던 IB부문 인력은 이달 17일 기준 70여명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장지영 상무보를 기업영업본부장으로 선임했고, 구성민 기업금융본부장을 전무로 승진시키며 IB 담당 인력들에 힘을 줬다는 평가다.

한 증권사 IPO 부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IPO 시장이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형사와 대형사 모두 전통 IB에 힘주는 중이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수빈·임지수 기자

DCM 주관 KB·NH·한국順... 연말까지 발행붐물에 수수료 경쟁 격화

KB證, NH證과 격차 벌리며 1위 수성
캡티브 경쟁 경고에 수수료 경쟁으로
연말까지 발행붐물... '저금리 차환' 목적
SK 올해도 발행 1위... 한화도 조달 늘려

올해는 예년보다 회사채 발행량이 크게 늘면서, 증권사들 간의 주관 경쟁도 뜨거웠다. 주관 순위는 KB증권이 NH투자증권을 따돌리고 1위를 수성했다. 연말까지 회사채 시장을 찾는 기업들이 많았고, 주관 자격을 따내기 위한 수수료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2024년 4분기 누적 기준 채권자본시장(DCM)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증권사가 주관을 맡은 무보증 공모 회사채(일괄신고 제)는 83조21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6조원에 비해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는 금리 인하에 저금리로 차환에 나서려는 기업들이 연말까지 회사채 시장을 찾은 영향이란 평가다.

주관 규모가 늘면서 주관사들의 경쟁도 한 층 치열해졌다.

전체 주관에선 KB증권이 올해 총 307건에 18조2337억원을 주관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 NH투자증권은 213건에 13조9488억원을 주관했다. 지난해 두 증권사 간의 격차는 4조원가량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회사채 부문에서도 KB증권은 1위를 차지했다. KB증권이 14조4699억원을, NH투자증권이 13조2678억원을 주관했다. NH투자증권이 연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4개 리츠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며 '건당 25만원' 수수료를 제시하는 등 수수료 출혈 경쟁도 불사했지만, KB증권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해 주관사들 간의 경쟁 양상이 계열사를 동원한 '캡티브 영업' 위주로 흘러갔다면, 올해는 수수료 경쟁으로 옮겨갔다. 이는 주관사들의 캡티브 영업이 회사채 금리를 왜곡시킨다는 불만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경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아직 캡티브 영업에 대한 제재에 나서진 않았지만, 상반기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실태파악에 나선 바 있다.

KB증권은 1위 수성을 위해 3분기부터 다수의 금융채 주관을 맡으며 '순위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실제로 KB증권은 한화생명보험과 삼성증권, 신한증권, 교보생명보험 등 금융사들의 회사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주관 자격을 따냈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PF ABS가 줄어든 영향이란 분석이다.

2024년 3분기 기업집단별 회사채 발행 규모

(단위: 억원)

* 금융사 제외



한 증권사 커버리지 담당자는 "PF ABS는 통상 KB증권이 많이 주관하며 실적을 챙겼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물량이 줄어들면서 순위 수성을 위해 금융채 주관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랜만에 회사채 시장을 찾은 삼성그룹의 물량을 경쟁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에 내준 것은 KB증권으로서 아쉬울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은 호텔신라를, NH투자증권은 삼성물산과 3년 만에 회사채 시장을 찾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발행 주관을 맡았지만 KB증권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ABS 부문에서는 KB증권이 3조7678억원을 주관하며 1위를 지켰다. 지난해 4조2591억원을 주관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 자체는 줄었다. PF 관련 ABS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SK증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22년 4위였던 SK증권은 지난해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1조8540억원을 주관하며 한국투자증권을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

SK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집단 중 조달 규모 1위를 기록했다. 올해만 7조3000억원을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했다. 연초부터 SK브로드밴드와 SK인천석유화학, SK E&S, SK에코플랜트 등 다수의 계열사가 활발히 조달을 이어나갔고, 12월에도 SK텔레콤이 3000억원을 조달했다.

한화그룹이 예년보다 활발히 회사채 시장을 찾은 점도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2조2600억원을 조달했는데 올해는 3조8740억원으로 그 규모가 크게 늘었다. 그동안 회사채 시장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한화손해보험, 한화시스템, 한화에너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오션 등이 조달을 이어갔다.

특히 한화오션은 9년만에 회사채 시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신용등급 BBB+로 비우량체에 속하는 한화오션은 500억원 모집에 4200억원의 수요를 받았다. 시장의 우호적인 투심을 확인한 한화오션은 내년에 물량을 늘려 한 번 더 회사채 시장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년에도 올해만큼 회사채 시장이 바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회사채 시장을 찾는 기업들이 많았다면, 내년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다음달에만 10조원에 가까운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한다.

'연초 효과'에 힘입어 연초부터 회사채 시장이 활발할 것이란 관측이지만, 최근 국내·외 정세(政勢)가 변수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불안정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 대선 등의 변수가 남아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금리인하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전 1~2월에 조달을 마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며 "금리인하 폭에는 현재의 전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리 하락 자체는 기업들의 조달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수·박태환 기자

▶▶ DCM 주관 KB·NH·한국 順...연말까지 발행붐물에 수수료 경쟁 격화

■ DCM 전체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182,377	307	넷마블 2 지피프로젝트1	1
2	NH투자증권	139,488	213	한온시스템 15 SK 311	2
3	한국투자증권	105,219	218	LG에너지솔루션 3 현대오토판딩이에스지 1	3
4	신한투자증권	89,414	167	SK하이닉스 225 커머셜오토 15	5
5	SK증권	72,283	91	SK하이닉스 225 티월드 97	4
6	삼성증권	44,871	115	하나에프앤아이 188 포스코퓨처엠 22	6
7	키움증권	36,361	113	SK렌터카 56 CJ제일제당 31	8
8	미래에셋증권	33,000	74	SK텔레콤 88 LG에너지솔루션 3	7
9	교보증권	18,999	44	국민은행 240529 BNK금융지주 11	-
10	한양증권	18,830	11	녹십자 44 LG에너지솔루션 3	-

■ 일반회사채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144,699	249	넷마블 2 LG에너지솔루션 3	1
2	NH투자증권	132,678	203	한온시스템 15 SK 311	2
3	한국투자증권	89,660	182	LG에너지솔루션 3 SK매직 13	3
4	신한투자증권	75,443	153	SK하이닉스 225 LG화학 57	4
5	SK증권	53,743	79	SK하이닉스 225 SK E&S 20	5
6	삼성증권	38,506	88	하나에프앤아이 188 포스코퓨처엠 22	6
7	키움증권	30,822	71	SK렌터카 56 CJ제일제당 31	8
8	미래에셋증권	29,950	66	SK텔레콤 88 LG에너지솔루션 3	7
9	한양증권	18,830	11	국민은행 240529 우리금융지주 16	-
10	하나증권	12,432	26	GS에너지 16 DL이앤씨 2	-

■ ABS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37,678	58	지피프로젝트 1 현대오토판딩이에스지 1	1
2	SK증권	18,540	12	티월드 97 티월드 94	3
3	한국투자증권	15,559	36	베스트 9 유플러스파이브지 75	2
4	신한투자증권	13,971	14	커머셜오토 15 색동이 26	4
5	iM증권	10,631	40	유플러스파이브지 74 신보2024 2	6
6	교보증권	7,054	35	세교 1 하월곡 1	-
7	NH투자증권	6,810	10	퍼스트파이브지 74 유플러스파이브지 78	9
8	삼성증권	6,365	27	신보2024 3 신보2024 18	-
9	키움증권	5,539	42	신보2024 1 색동이 26	10
10	유안타증권	5,430	42	퍼스트파이브지 76 신보2024 23	-

■ DCM 전체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141,535	334	LG에너지솔루션 3 바바리안스케이코리아 8	1
2	NH투자증권	112,653	243	주택도시보증공사 1 한온시스템 15	2
3	한국투자증권	92,518	263	LG에너지솔루션 3 신보2024 2	4
4	신한투자증권	80,239	218	LG에너지솔루션 3 현대카드유니버스 2	5
5	SK증권	69,500	134	SK하이닉스 225 티월드 97	3
6	삼성증권	46,493	169	포스코퓨처엠 22 신보2024 3	7
7	키움증권	39,445	174	삼성바이오로직스 8 신보2024 1	8
8	미래에셋증권	35,140	125	LG에너지솔루션 3 유플러스파이브지 77	6
9	하나증권	34,186	114	GS에너지 16 하나카드오토 1	-
10	교보증권	23,804	72	현대백화점 31 더블케이가산 1	10

■ 일반회사채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107,590	276	LG에너지솔루션 3 한화생명보험 6	1
2	NH투자증권	105,355	231	주택도시보증공사 1 한온시스템 15	2
3	한국투자증권	78,471	226	LG에너지솔루션 3 LG화학 57	5
4	신한투자증권	67,606	203	LG에너지솔루션 3 삼성바이오로직스 8	3
5	SK증권	50,960	122	SK하이닉스 225 SK E&S 20	4
6	삼성증권	39,941	141	포스코퓨처엠 22 신세계 141	7
7	키움증권	33,606	131	삼성바이오로직스 8 SK렌터카 56	8
8	미래에셋증권	32,090	117	SK렌터카 56 CJ제일제당 31	6
9	하나증권	29,268	102	GS에너지 16 이마트24 37	9
10	대신증권	21,173	96	LG에너지솔루션 3 삼성바이오로직스 8	-

■ ABS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33,945	58	바바리안스케이코리아 8 뉴스타브레인시티 3	1
2	SK증권	18,540	12	티월드 97 티월드 105	2
3	한국투자증권	14,047	37	신보2024 2 베스트 9	3
4	신한투자증권	12,633	15	현대카드유니버스 2 커머셜오토 15	5
5	iM증권	10,945	42	유플러스파이브지 77 중진공2024 2	6
6	교보증권	7,354	36	더블케이가산 1 2024기보 1	-
7	NH투자증권	7,298	12	큐브반포 3 퍼스트파이브지 74	-
8	삼성증권	6,552	28	신보2024 3 신보2024 18	-
9	메리츠증권	6,196	6	엘월비엘티 8 롯데캐피탈 4	-
10	키움증권	5,839	43	신보2024 1 2024기보 2	-

정치 리스크發 신용경색... 내년도 회사채 발행시장은 '혼돈'

내년 초 16조 회사채 만기 도래하지만
트럼프·탄핵 등 리스크에 유동성은 선별적
건설·유통·2차전지 등 취약업종 조달난
킵스 도입으로 보험채 발행 대거 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채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 기대도 있었지만, 기업 자금 조달의 차별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초에만 15조원이 넘는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와 부동산PF 리스크 등 악재가 잇따르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경색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회사채 약 2400억원이 순상환됐다. 올해 10월(3조754억원)과 11월(3조5700억원)에 각각 3조원 넘게 순발행되던 시장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양상이다. 불과 며칠 전까진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 발행사들 이외에 여러 새로운 발행사들이 채권시장 발행을 재개하는 추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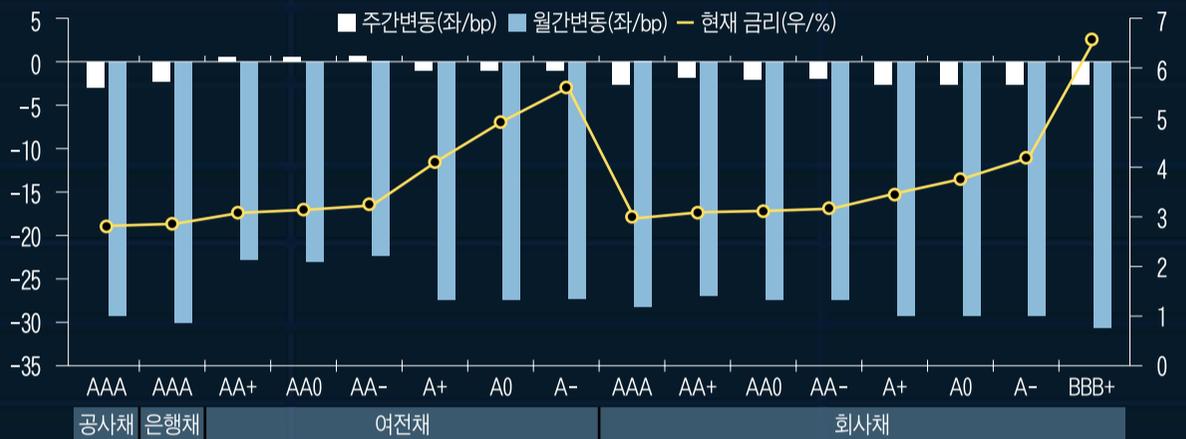
단기물 시장에서는 이미 투자심리 위축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국내 건설사들이 3개월 만기 전자단기사채를 연 4%대 중반 금리 수준에서 발행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된 최근에는 연 7% 금리에 투자자를 겨우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ABL 생명과 효성화학이 각각 1000억원, 30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나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해 전액 미매각됐다.

내년도 크레딧 시장은 대내외 변수가 맞물리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업계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투자 심리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들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주요 채권 금리 변동 추이(3년물 기준)



대형 증권사 기업금융부 관계자는 "대규모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이 신용등급 저하 가능성을 두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신용등급 AA급 기업의 대규모 발행만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갈 경우에도 싱글A까지만 수혜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정치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로 건설·유통·2차전지·석유화학 등 취약업종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 기관들은 이미 이들 업종에 대한 채권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익스포저가 큰 금융권과, 불리한 산업환경 속 실적부진 및 유동성 위험이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시장 상황은 증권사들의 우량채 선점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계열사를 동원한 '캡티브 영업'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주춤했던 양상이었으나, 내년에는 오히려 더 치열해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한도(Book) 및 자본 제약(BIS비율)이 큰 중소형사일수록 캡티브 영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관들도 이를 이용해 수요예측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발행 후 유통물을 매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캡티브 관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이슈도 증권업계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새 회계제도인 킵스(K-ICS)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신종자본 증권 발행이 2~3년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관사 선정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형 증권사들이 상위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물량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중위권 증권사들은 중소형 보험사 물량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킵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보험사들도 이에 맞춰 자본비율을 점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에 확보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발행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도 회사채 시장은 우량기업과 취약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인 만큼 유동성은 충분하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선별적인 투자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펀더멘탈에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져, 올해보다 더 극명하게 수요예측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설희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